

구역:

이름:

<p>4월 15 월요일</p>	<p>역대하 1장-6장 □ (핵심장 6장) □</p>	<p>*성전이 완공되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에 매진합니다. 일전에 다윗이 매입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성전 건축 부지로 선정하고, 아버지가 남겨 준 수많은 물자를 활용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성전에서 사용할 각종 물건도 함께 제작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와 족장을 비롯한 모든 백성을 소집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도 이에 영광으로 화답하십니다. 이렇게 완공된 성전에서 솔로몬은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가득합니다.</p>
<p>문제</p>	<p>“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을 아시오니 그의 ()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을 아심이니이다”</p>	
<p>4월 16 화요일</p>	<p>역대하 7장-12장 □ (핵심장 11장) □</p>	<p>*끝나 버린 영광: 성전 낙성식이 장엄하게 거행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화려했고, 나라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건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영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타락 과정 대신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왕국을 통치하며 나라가 갈라지자, 르호보암은 북쪽 지역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 스마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중단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고 우상을 세우자, 북왕국 백성과 북쪽의 거주하던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 버립니다.</p>
<p>문제</p>	<p>“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에게 돌아오되”</p>	
<p>4월 17 수요일</p>	<p>역대하 13장-18장 □ (핵심장 15장) □</p>	<p>*유다에서 계속 일어나는 신앙부흥운동: 역대기는 다윗과 유다 왕국 왕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도 유다 왕국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 애쓰는 왕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뜻의 순종하려고 애쓰는 두 왕, 아사와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아사는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신들의 모습을 새긴 주상을 부수고 아세라를 섬기는 나무를 찍어 버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사의 신앙부흥운동에는 이후 왕들이 시도하는 신앙부흥운동의 기본적인 패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모습은 함께 전쟁을 벌인 북왕국 아합왕이 보여주는 불신앙과 대조됩니다.</p>
<p>문제</p>	<p>“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과 ()를 행하여”</p>	

<p>4 월 18 목요일</p>	<p>역대하 19 장-24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9 장) <input type="checkbox"/></p>	<p>*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전투에 나간 사건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만, 유대 전역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갑니다. 이후 여호사밧은 아람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나라를 태평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산당을 없애지 않는, 미완의 개혁이었습니다. 이후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등장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일찍 죽고, 아하시야의 모후인 아달랴가 왕위를 차지해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거사로 인해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p>
<p>문제</p>	<p>“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p>	
<p>4 월 19 금요일</p>	<p>역대하 25 장-30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30 장) <input type="checkbox"/></p>	<p>*지겹도록 반복되는 범죄와 회복: 유다 왕들의 모습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중에 주목할 왕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혼자만의 정직함이어서 백성의 삶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는 역대 최악의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아하스는 성전의 기물들까지 파괴하거나 치워 버렸고,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합니다. 다행히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며 신앙을 회복하지만, 강대국 앗수르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다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p>
<p>문제</p>	<p>“여호와께서 ()의 기도를 들으시고 ()을 고치셨더라”</p>	
<p>4 월 20 토요일</p>	<p>역대하 31 장-36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36 장) <input type="checkbox"/></p>	<p>*하나님의 심판: 히스기야 시대에 결국 앗수르가 유다의 온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분노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앗수르를 물리쳐 주십니다. 말년에 히스기야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결국 그의 아들 므낫세가 등장하며 이스라엘은 최악의 우상숭배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말년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요시아의 강력한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역대하의 마지막은 바사 왕 고레스의 성전 건축 조서 반포로 끝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p>
<p>문제</p>	<p>“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p>	

- 매일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box 에 체크를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핵심장), 본당 안내석과 친교실에 준비된 성경문답지 수거함에 **노란 봉투와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